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원 국제감사

I. 아체·니아스 재건·복구 위원회 (Aceh and Nias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Board)

1. 구성일자

- 2005. 4. 16(각 위원회별 위원들은 4. 30 임명)

2. 하부조직

1) 실행위원회(Executive Board): 공여국들과 project 협의, 승인 및 집행 기능

- 위원장: Kuntoro
- 부위원장: 아체주 부지사
- 서기 및 위원 8명: 기획, 기관발전 및 능력배양, 주택 및 기간산업, 경제, 종교 및 사회, 교육 및 보건, 재정, 홍보분과 등

2)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재건·복구관련 정책적 가이드라인 제시(steering committee

역할도 수행)

- 위원장: 정치·인권·법률 조정장관
- 서기: 국가개발계획청장
- 위원: 복지조정장관, 경제조정장관, 재무장관, 공
공사업장관, 아체주 의회의장, 북부 수마트라 주
지사, 아체 경찰청장, Syah Kuala 대학총장,
Metro TV 사장 등 총 17명

3)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 사업집행 관 련 제반 감독 기능

- 위원장: Addullah Ali
- 서기: J. Hadi Sumarto
- 위원: 인니적십자사 총재, 인니 전환경장관 등
총 7명

3. 참고사항

- 상기 3개 하부조직 중에서 실행위원회는 반다아체에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위원장이 공여국들을 접

촉하는 등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실무직원들의 채용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까지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감독위원회에 외국 공여국 대표 및 국제 NGO 단체 대표들의 포함 문제는 향후 쓰나미 국제 감사회의의 후속회의 등을 통해서 인니 정부와 공여국 대표들간 협의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됨.

II. 공여국(기관)별 자금 집행방식과 사업 추진현황

1. 자금 집행방식 개요

1)주요 공여국 사업

- 호주(7.87억불), 일본(1.46억불), 미국(3.5억불), 독일(0.7억불) 등 주요 공여국들은 현재 인니 정부와 양자협약, MOU 체결들을 통해 이미 주요 프로젝트를 합의하고 있으며, 자금은 직접 집행

2)우리나라 포함, 일반 공여국들의 사업

- 각국이 희망하는 사업계획서를 조만간 상기 아체·니아스 재건복구위원회와 협의, 사업을 시행하고 자금은 각 공여국이 직접 집행
 - 인니 정부와 구체 프로젝트를 합의시, MOU를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건설회사 등 선정 절차

3)국제기구 자체사업

- ADB(3.72억불), UN(UN 각기구 합계:7.23억불),

World Bank(1.25억불) 등은 하기 다자신탁기금에 일부 기여한 부분 이외 자금을 각 기구들이 직접 집행

4)World Bank를 통한 다자신탁기금 사업

- EC 및 유럽국가들(20개국)이 참가하여 총 5억불 규모 신탁기금을 마련, 인니 정부가 구체적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자금은 World Bank가 집행
 - EC:2.6억불
 - 화란:1억불
 - IBRD:0.25억불
 - ADB:0.1억불
- 5.10 제1차 조정회의를 소집, 2.5억불 규모 사업을 승인

5)인니 정부 예산사업

- 인니 각 부처별로 아체 및 니아스 복구사업비로 2005년도 예산에 2.1조Rp(2.2억불) 배정
- 동 예산은 각 부처가 아체 재건·복구 위원회와 협의 자체 집행

2. 사업 추진현황

1)주요 공여국

인니 정부는 그동안 5천만불 이상 지원을 서약한 주요 공여국들에 대해서는 양자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포함, 일반 공여국들에 대해서는 아체·재건 복구 실행위원회 설립시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견지해 옴.

□ 미국

- 인니 정부와 아체 · 재건 MOU 체결(5.8)
 - 아체 서부해안지역인 반다아체-물라보간 240km 도로건설
 - 2.45억불 규모사업으로 공개입찰 개시:인니 및 미국 기업대상
- USAID를 통해 지방정부 재건, 교육, 위생, 보건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일본

- 도로건설, 위생, 교육 분야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

□ 호주

- 인니 정부와 구체프로젝트 협의 중
- 독일과 공동 병원 건설 프로젝트 협의중 (Zainoel Abidin Hospital 등)
- 아체 주민들의 보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마련중

□ 독일

- 호주와 공동 병원 건설 프로젝트 협의중(독일은 의료 장비 공급 예정)
- 식수, 위생, 의료, 건물 수선, 학교 건설 등 사업

2) 우리나라 포함 일반 공여국

□ 우리나라

- 우리가 희망하는 10개 재건 · 복구 사업을 인니 정부(국가개발 계획청)에 기 제시하였으나, 최근 아체 · 니아스 재건 · 복구 실행 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동 위원회측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새로운 양식에 따라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청(5.6)

- 이에 따라 본부에서 우리 정부의 구체사업안을 재확정시(연호(2)), 이를 토대로 아체 · 니아스 재건 · 복구 실행위원회와 구체 프로젝트를 협의 예정

□ 중국

- 쓰나미 피해자들을 위한 재건마을 건설 예정

3) 국제기구

- World Bank, ADB, UN 등은 각 기구별로 재건 · 복구 사업을 전개중이며 국제기구들은 대규모 기간산업 프로젝트 보다는 주민들의 능력배양, 지방정부 재정비, 아동심리치료, 위생, 보건, 교육 등 재건 분야 사업에 중점 투자

4) World Bank 주관 다자신탁기금

- 동 신탁기금 조정위원회(신탁기금 참여공여국, Kuntoro 아체 재건복구 실행위원장 등 인니 정부 대표)는 5.10 제1차 회의를 열고 신탁기금 5억불 중 절반인 2.5억불에 대한 사업을 승인함.
- 향후 2년간 1000개 마을에 주택 2만호 건설, 3만호 수선사업:1.5억불
- 토지대장 복구, 토지소유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사업:0.28억불
- 시골지역 공동체 복구사업(6,000개 소기업 자금 지원, 주민 교육 등):0.54억불
- 도회지역 공동체 복구사업(도로, 다리, 학교, 위생, 전기, 하수도 등):0.18억불
- 상기 사업 승인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입안, 추진 예정

Ⅲ. 국제기구에 의한 자금집행 포함, 재건복구사업 집행의 문제점 (공관 의견)

- 대부분의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이 집행방식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결국 지원금을 인니 정부 예산사업으로 주지 않고 직접 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각국의 희망사항이 상이한 관계로 인니 정부가 종합적으로 마련한 재건·복구 청사진(인니 정부의 예산사업을 전제)의 효율적인 이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다양한 주체인 각 공여국(기관)들에 의한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향후 공여국들에 의한 아체 재건·복구 사업 허가관련 인니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아체 재건복구 위원회와 직접 처리된다는 것이 아체 재건복구 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이지만, 인니 중앙정부와 아체 재건복구 위원회간 명확한 업무분장, 역할 조정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참고로 5월초 Kuntoro 재건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인니 정보통신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Intel 사에 대해 아체 전지역의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사업 추진을 승인하였고, 최근에는 화란 정부가 요청한 Malahayati 항구 보수사업을 승인함.

- 한편, 아체지역의 안전문제(분리독립운동), 원격지(자카르타로부터 1000km 거리), 아체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판정문제, 인니 중앙·지방 공무원들의 부패문화 등은 향후 아체 재건·복구 프로젝트 사업 추진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짐.
- 연호(3), 긴급구호용 각국의 지원 컨테이너가 1500개나 메단 항구에 아직도 야적되어 있는 상황, 인니 정부가 작성한 재건·복구 청사진의 통계가 과장되어 있다는 지적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주인도네시아 대사관]